

□ 성명서 □

##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계속적인 사료값 폭등문제는 최근 환율급등마저 더해져 '미래진행형'이다. 현장농가들의 고통과 불안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대책 또한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유가 현실화'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낙농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조짐이다.

현재 생산현장은 절박한 목소리로 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의 한축인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속히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생산자간 의견통합을 통해 공동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원유가 현실화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머뭇거리다 원유가 현실화 시기를 놓쳐 우리 모두가 만시지탄(晩時之歎)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에 미래 한국낙농을 이끌어 갈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원유가현실화에 대한 전국낙농관련 조합협의회의 입장 표명을 정중히 요청하며 협회와의 공동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 4. 11(금)



□ 성명서 □

## 원유가 현실화가 남의 일인가!

-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의 공동대응을 재차 촉구한다 -

- ▷ 약속만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지난 한차례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장 서신발송 및 면담에서 원유가 현실화를 위해 공동 대응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 4.17일 예정이었던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 회의가 또다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 ▷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온 꼴이다. 지속적인 사료값 인상으로 기본적인 생계비는커녕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낙농가족들이 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폐업농가 속출은 물론 대한민국에 낙농은 없다. 이에 지금이 바로 생산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뜻을 모아 원유가 현실화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기인 것이다.
- ▷ 이유야 어찌되었든 매월 정기적인 회의가 1월 이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생산현장의 고통을 등한시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그때그때의 이유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앞 뒤 말을 바꾼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정녕 생산자간의 의견일치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면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 ▷ 이제는 허울뿐인 말보다 실천이 필요할 때다.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진정 생산현장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하루속히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협회와의 공동대처를 위해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기대를 계속 저버린다면 현장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이후의 모든 책임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 4. 17(목)



□ 성명서 □

## 답답한 남양유업, 우유 덤 판매 책임 굴레를 뒤집어 쓰려하는가!

1. 남양유업 한마디로 몰지각(沒知覺)하다. 현재 모두가 잘못된 관행인 우유 덤 판매 중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대표유업체인 남양유업이 또 다시 덤 판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중소유가공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언론을 통해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으려 하기 때문이다.
2. 진정 낙농산업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덤 판매 중단 약속엔 아랑곳 없이 남양의 공신력이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유업체 자체적으로 그동안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고, 낙농,유업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덤 판매 중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3.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틈을 타 나만 배불리자는 심보가 아니라면, 더 이상은 안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다 흐리는 법이다.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다면, 이로 인해 예전 상황이 재연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뒤집어 쓰게 될건지는 불을 보듯 흰하다. 낙농,유업의 공생 원칙을 어기고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남양답지 않은 작태다.
4. 미래 한국낙농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지속적으로 우유 덤 판매 근절에 앞장 서서 촉구해왔다. 남양은 진정 남양답게 즉각 동참하라. 만약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모든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남양은 제살 깎아먹기식 덤 판매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금 당장 말이다.

2008. 4. 25(금)